

# 경제

Biz & Economy

8 광주일보

제17538호 2006년 8월 29일 화요일

주가	환율	금리
-1.46	+2.10	보합
1,327.89 (코스피지수)	964.00원 (원/달러)	4.75%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6.28	(-0.13)
다우 (25일)	11,284.05	(-20.41)
나스닥(25일)	2,140.29	(+3.18)
닛케이	15,762.59	(-176.0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94엔	(+0.45)
유로 달러 환율	1,279.4달러	(+0.27)
3년만기 회사채	5.08%	(보합)
물금리	4.48%	(-0.01)

## 여행객 공항·항만 통관 평균 20분 40초 걸린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공항, 항만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통관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28일 관세청이 내놓은 '2006년 2·4분기 공항만 통관시간 분석'에 따르면 수하물 검사를 받지 않는 여행자들의 공항만 통관시간은 평균 20분40초로 전반기에 비해 2분16초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만별로는 인천 25분08초, 김해 20분43초, 제주 18분, 대구 16분06초, 청주 14분38초, 광주 15분51초, 김포 18분57초(이상 공항), 부산 20분02초, 인천 44분04초, 평택 24분, 군산 11분, 속초 19분30초(이상 항만) 등이다. 또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여행자의 공항만별 평균 통관시간은 26분23초였다. 공항만별로는 인천 29분51초, 김해 31분33초, 제주 18분36초, 대구 16분11초, 청주 15분50초, 광주 21분37초, 김포 16분(이상 공항), 부산 22분14초, 인천 69분33초, 평택 29분, 군산 20분, 속초 26분10초(이상 항만) 등이다. /연합뉴스

## 수출 강화 '국가 브랜드 맵' 작성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한국 상품과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브랜드 맵'이 작성된다. 코트라(KOTRA)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을 수립키로 하고 28일 국가브랜드관리 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관리본부 현관식은 이날 홍기화 코트라 사장과 정준석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국가이미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연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열렸다. 코트라는 한국이 2002년부터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를 외치며 국가브랜드 제고에 범정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이미지, 기업, 상품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 상의 "광주공항 개항 지정" 건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직무대행 전도영)는 28일 광주공항을 개항(국내외 항공기가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공항)으로 지정하고, 이를 '제 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경제부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광주공항은 최근 중국 및 동남아권과 교류가 늘어나고 광주가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돼 국제선 수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요건이 부족 때문에 개항으로 지정되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광주의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상의는 "중부·동남·제주권에는 국제선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서남권에만 유일하게 개항공항이 없어 지역간 SOC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공항이 종합계획 수립소사에 반영돼 국제선시설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해태마트 광주점 10년만에 문 닫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해태마트 광주점이 개점 10년만인 다음달 문을 닫는다. 28일 해태마트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태마트가 이랜드그룹에 인수됨에 따라 광주점 영업을 9월 10일까지만 하기로 했다. 1996년 개점한 해태마트 광주점은 식품과 위주로 주월동과 봉선동, 진월동을 주 상권으로 영업해왔다. 광주점 관계자는 "폐점 이후 광주점 건물 활용 방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해 추석(10월6일) 물가는 장마이후 고공행진중인 청과는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 급급비와 커피, 올리브유 등 일부 품목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바이어들이 최근 '2006년 추석 선물세트 품평회'를 열고 올해 추석 주요 선물의 품목시세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과일은 안정세=청과 선물세트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배는 지난해의 경우 저온과 서리로 인해 10~15% 오른 가격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재배면적이나 작황 등 물량이 풍부해 지난해보다 5~10%가량 시세하락이 예상되며 품질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사과는 '양광', '홍장군', '히로사카' 등 중생종이 주종을 이루고 가격도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

# 올 추석 물가는...



## 광주신세계 이마트 바이어들 시세예측

▲과일은 안정세=청과 선물세트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배는 지난해의 경우 저온과 서리로 인해 10~15% 오른 가격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재배면적이나 작황 등 물량이 풍부해 지난해보다 5~10%가량 시세하락이 예상되며 품질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사과는 '양광', '홍장군', '히로사카' 등 중생종이 주종을 이루고 가격도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

등한 커피와 올리브유는 지난해 추석보다 10~25%의 가격상승이 점쳐진다. ▲축산물은 소폭 상승=한우(냉동)갈비는 kg당 3천원정도 낮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갈비물량이 풍부하지 않아 지난해 추석과 비슷하거나 한 자릿 수 상승이 예상된다. 산지 한우가격과 연동되는 냉장육의 경우 현재로서는 8~10%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달 초에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에 따라 시세가 낮아질 수도 있다. ▲수삼·덕더덕 5~10% 상승=수삼은 올해 재배농가가 10% 늘었음에도 장마로 인한 성장둔화로 10%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덕더덕 5~1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배영석점장은 "경기위축과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선물조기구매' 현상이 이번 추석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지난해보다 선물세트 종류를 200여 개가 많은 950여개로 늘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社·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최영기 (주)한국환경사업단 대표

# 폐자원 재활용... 환경오염방지 앞장

발전소 분진서 철강화 물질 빼내 유럽 수출  
규모 보다 기술력 우선...올 매출 45억 '거뜰'

"과거에는 발전소 등에서 기름이 연소하고 남은 분진을 매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자동차 공정을 통해 분진에서 바나듐을 추출, 철을 강화시키는 물질에 재활용하는데 성공했죠." 28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공동시상하는 '8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주)한국환경사업단(여수시 월내동) 최영기(50) 대표는 "이 바나듐 산화물은 2004년 이후 유럽선진국에 수출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향후 이 개발플랜트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 수출할 예정"이라며 "엄청난 수입대체효과를 물론 세계적인 자원재활용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대 환경공학과를 나와 제일모직, LG석유화학 등에서 일한 최 대표

가 주유회를 재활용한 폐수슬러지 탈수보조제 생산업체인 한국환경사업단을 설립한 것은 지난 2000년. 그해 5월 사업단은 유화수소가스 중 황 회수 제거 액상추출을 개발, 국산화에 성공해 관련 업체를 짝꿍 놀라게 했다. 이어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유가속 침출분리공정 중 디워터링(Dewatering) 기술 개발, 인산비료 플랜트 부산물을 이용한 메소포르스 실리카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최 대표는 "특히 폐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카보필러(Carbo-Filer)'라는 탈수보조제를 독자적으로 개발, LG석유화학과 LGMMA 등에 납품하고 있다"면서 "이 제품은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6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미니 업체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8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8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최영기 한국환경사업단 대표,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인 환경사업단은 지난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획득과 함께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기청에 의해 우량기술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출은 2004년 5억5천만원, 2005년

21억원에서 올해 4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출은 올해 전체 매출 가운데 67%인 30억원을 차지, 우리나라 탈수보조제 및 개발플랜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동아건설 본입찰 6개업체 참여

대주·코오롱 건설 등...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아건설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대주건설, 보성건설 등 6개 회사가 참여했다. 동아건설 매각주관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8일 동아건설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6개사가 입찰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경남기업, 대주건설, 보성건설, 수산중공업컨

소시업, 프라이밍산업, 코오롱건설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이들 업체의 입찰제안서를 평가한 뒤 체감단 동의를 거쳐 빠르면 3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날 가격요소 비중을 높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을 확정하고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할 방침이다. 캠코는 동아건설 인수금액이 5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당초 동아건설 인수전에는 14곳이 인수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산업자 일부가 '파산기업의 전기공사사업 면허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 흑산농협 강제 퇴출

농협구조개선에 의해 강제 퇴출되는 농협이 전남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농림부는 유동성자금의 부족으로 예금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흑산농협(신안군 흑산면)에 대해 농협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농협구조개정법)에 따라 28일 조합의 사업 및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흑산농협은 예수금을 초과해 과도한 대출을 해왔으며,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연체비율이 50%를 넘는 등

부실이 심하게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했다. 현재 흑산농협의 자본금 규모는 1억6천300만원으로 2004년의 14%에 불과하며 부실액은 지난해말보다 20억원이 늘어나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흑산농협은 이에 앞서 농협구조개정법에 따라 지난해 합병요구를 받아 인근 비금농협과 합병을 2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무결해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부는 조합의 재산에 대한 실사 등

## 예수금 초과 등 부실 심각 6개월간 채무지급 정지

업무처리를 위해 28일 관리인 등 중앙회 직원을 조합에 파견했으며, 이번 조치로 흑산농협은 28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6개월간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러나 계약이전방식을 통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수조합 조기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늦어질 경우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담보대출 등도 안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지역민 금융·경제교육센터 위상 강화"

남세기 韓銀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농업 등 1차산업 위주이던 과거와 달리 제조업과 광산업, 문화산업 등 1·2·3차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적인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최근 부임한 남세기(南世基·5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이같은 산업구조의 환경변화에 부응해 지역내 싱크탱크로서 지역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특히 지역내 경제연구소 등과 연계해 지역발전형 연구·조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내 경제교육센터로서의 위상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파리사무소 과장과 금융시장국 시장조사실장, 강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남본부장은 지리산 중추 2번을 비롯해 무등산·조계산·팔영산 등 전국의 주요 산을 두루 섭렵할 정도의 등산 마니아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농업정책 제1순위 "농산물 가격 안정"

국내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최근 농촌정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3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중점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51.0%)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19.0%) 등을 꼽았다. 또 농가소득증대로 경영안정 지원(33.7%), 직접지불제 확충(24.6%), 부채 경감대책(22.4%) 등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농촌정책으로는 연금지원 확대(47.0%), 교육여건 개선(26.6%), 마늘비율(9.3%) 등 순으로 대답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